

Robert Chisholm 박사, 사무엘 상하, 사무엘 하, 세션 15, 사무엘 상 26-28

© 2024 로버트 Chisholm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Dr. Bob Chisholm과 그의 사무엘상하장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사무엘상 26-28장 15회입니다. 다윗이 다시 사울을 살려 주다(26장). 다윗이 다시 가드로 도망하다(27장), 그리고 에인도르에서 집회(무덤 너머의 나쁜 소식), 28장.

다음 수업에서는 사무엘상 6장부터 28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24장과 25장에서 본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물론 사울은 광야 전역에서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그는 그를 죽이고 그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을 제거하고 싶어합니다.

24장에서는 상황이 조금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해 동굴로 방황합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우연히 그 동굴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원수를 제거할 기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일을 거부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쁨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몰래 다가가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습니다. 사울이 굴에서 나오자 다윗이 나와서 그와 마주하며 이르되, 내가 너를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죽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한테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여기 당신 옷의 한 귀퉁이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은 결백하며 사울을 죽일 생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그가 그를 죽이고 싶었다면 동굴에서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이를 인정하고, 사울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옳고 그름입니다. 사울은 또한 다윗이 언젠가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사무엘상에서 전개하고 있는 다윗에 대한 변명, 즉 다윗에 대한 변호는 전시 A입니다. 사울 자신의 입에서 그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신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는 다윗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유죄이고 다윗은 무죄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25장에서 다윗은 나발이라는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게 되지만 그에게는 매우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있습니다.

다윗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나발의 목자와 양떼를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나발에게 화를 냈지만, 나발은 이를 감사하지 않고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David는 Naval과 그의 집안의 모든 남자를 죽일 준비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살인이 될 것입니다.

나발의 현명한 아내인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와서 이 무모하고 살인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고 본질적으로 말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녀가 주님의 대리인임을 인식하고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해군과 그의 가족을 죽이려는 의도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지혜의 음성을 듣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두 구절 모두에는 다윗이 24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긴다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배경입니다.

여기 26장에서 우리는 24장에서 일어난 일과 매우 유사한 사건에 대해 읽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26장의 제목을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다시 살리다로 정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상 24장에는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살려주었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 26세에 그는 다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는 사울을 죽일 또 다른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엘상 24장이 다윗의 성실성을 옹호하는 증거 A에 있었다면, 사무엘상 26장은 증거 B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둘 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의도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그를 그렇게 인식하더라도 그는 사울의 적이 아닙니다. 일부 학자, 일부 비판적 학자들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두 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구한 사건이 딱 한 번 있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두 가지 다른 버전, 즉 두 가지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글썄, 사실 인생은 데자뷰 순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일이 가끔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어떤 면에서는 비슷하지만 아주 아주 다릅니다. 사무엘상 24장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기회를 가져옵니다.

사울은 우연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는 이 동굴로 방황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에서는 다윗이 접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나란히 읽어보면 실제로 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두 가지 별도의 사건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다시는 다윗을 쫓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4장에서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럴 거예요.

사울은 이 시점에서 매우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괴롭히는 악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는 위아래로 흔들리고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여기 프레젠테이션의 천재성의 일부입니다.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의 행동이 그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26장은 사무엘상 24장과 나란히 저자가 다윗을 변호하는 중요한 판자이다.

사무엘상 26장에서 우리는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서 사울에게로 갔다는 것을 읽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들은 전에 다윗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다윗이 여시몬 맞은편 하길라 산에 숨어 있지 아니하냐 하더라 그래서 사울은 십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그 모든 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캠프를 만든다. 사울이 24장에서 자신의 곡조를 바꾼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이 저 아래 근처에 있다는 말을 듣고 사울은 다시 다윗을 쫓았습니다. 지금은 사울을 믿을 수 없습니다. 26장 5절에 보면 다윗이 길을 떠나 사울이 진 친 곳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동굴이 없습니다. 다윗은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연이 아닙니다.

다윗은 일부러 사울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과 군대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누웠던 곳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상한 대로 사울은 진영 안에 누워 있었고, 군대는 그를 둘러싸고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왕이 내부, 중앙에 있고 그의 주위에 군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상대적인 보안이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헛 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에게 물었습니다.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요, 요압의 형입니다. 그러므로 아비새는 요압과 함께 다윗의 조카입니다. 나와 함께 사울에게 진영으로 갈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진영으로 행진하려고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갈게, 아비새가 말했다.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는 밤에 군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보초들은 아무도 다윗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울의 진영으로 바로 왈츠를 추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진 안에 누워 있었고, 창은 머리 옆 땅에 꽂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 창에 대해 논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창이 나타나면 우리에게 몇 가지 사실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는 다윗을 향한 사울의 적개심과 그의 살인 의도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는 두 번이나 다윗에게 창을 던졌으나 놓쳤습니다.

그는 한번은 자신의 아들 조나단에게도 그것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그 창, 그 창 의 형상은 다윗에게 이 사람이 당신의 원수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또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기회도 제공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울의 머리 근처 땅에 박혀 있었습니다. 아브넬과 군사들이 그를 둘러싸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굴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지금이 기회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울을 그림에서 빼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마치 여기 있는 아비새가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 내가 너를 위해 그렇게 해줄게"라고 말한 것과 거의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아비새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들키지 않고 이곳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저기 창이 있습니다. 사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나 봅니다. 때로는 사건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틀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특정한 방향으로 조율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당신은 실제로 알지 못합니다. 아비새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를 죽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 창을 한 번만 찔러 그를 땅바닥에 고정시키겠습니다.

나는 그를 두 번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Abishai는 한 번의 추진력만 있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그를 멸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어도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다윗은 맹세합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친히 그를 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철학을 봅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사울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다윗에게 사울 앞에서 그의 결백을 보여줄 또 다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윗의 태도는 아마도 여호와께서 친히 그를 치실 것이요, 때가 이르매 그가 죽을 것이요,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서 사울을 경기장 밖으로 데려가실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구상합니다.

주님은 나발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를 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의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늙어 죽습니다. 아니면 전투에 나가서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일어날 일은 세 번째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느니라.

이제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가자. 이전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사울에게 기회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사울의 겹옷을 조금 잘라냈을 때, 그는 여기서도 같은 목적으로 창과 물병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창과 물병을 사울의 머리 곁에 두고 떠나갔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도, 아는 사람도 없었고, 깨어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왜 여기에서 왈츠를 추는데도 들리지 않고 들키지 않고 아무도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참으로 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이 모든 일에 다윗과 함께 계십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기를 바라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또 다른 기회를 갖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울의 모든 군대 위에 먼지를 뿌리셨고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David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할 것입니다. 사울 같은 사람을 대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다윗은 건너편으로 건너가 언덕 꼭대기에 섰고 그와 사울의 군대 사이에는 넓은 공간이 있었고 그는 그 군대와 나일의 아들 아브넬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David는 여기서 약간의 쓰레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아브넬은 군대장관이기 때문에 아브넬에게 비비실 것입니다.

아브넬은 궁극적으로 그의 주인 사울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David는 외칩니다. Abner, 나에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넬이 대답하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그러자 데이빗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남자죠, 그렇죠? 이스라엘에 당신과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왜 왕이신 주님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누군가가 당신의 왕이신 주님을 멸망시키러 왔습니다. 당신이 한 일은 좋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인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와 너희 사람들은 반드시 죽을지라 주위를 둘러보아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창과 물병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데이빗은 여기서 그것을 문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24장과 26장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지만 인생에는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과거에 경험한 일을 여러 번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세부 사항을 함께 엮으면서 이 두 이야기를 합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두 개의 이벤트가 있었는데 마치 하나인 것처럼 병합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사점이지만 몇 가지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이 네 목소리냐? 내 아들 데이빗. 제시의 아들이 아니라 또 내 아들 데이비드입니다. 그래서 그는 24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좀 더 사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데이빗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다윗의 말은 사울을 향한 그의 태도, 그의 겸손, 사울이 참으로 그의 주님이라는 인식을 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습니다. 왕이신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왜 당신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따라서 그가 이전에 제기한 주장과 매우 유사한 주장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그리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이제 왕이신 내 주여, 종의 말을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충동하여 나를 대적하게 하시면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면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 여호와와 상속 재산에서 나를 쫓아내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내 피가 여호와 앞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산에서 자고새를 사냥하는 사람이 벼룩을 찾으러 이스라엘 왕이 나왔습니다. 데이빗은 자신을 비하하는 말로 말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당신에게 위협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윗은 흥미롭습니다. 그는 사울이 왜 이런 일을 고집하는지에 대해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사울을 선동하여 다윗을 대적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윗의 편에 계십니다.

그가 사울을 부추겨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갈등을 겪고 계십니까? 아니요. 저는 다윗이 여기서 악령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David가 처음 채용되었을 때 왜 채용되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령이 사울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말쟁이 행세를 하고 사울을 진정시키려고 다윗을 배에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괴롭게 하신 것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어떤 목적으로든 나를 대적하도록 너희를 충동하시는 것이라면, 내 생각에 여호와와 우리가 전에 이것에 대해 말한 적이 있느니라. 사울이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제물을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뭔가를 해야 합니다. 당신은 회개하고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에게서 그것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인간이 당신에게 이것을 하도록 격려한다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이 하는 일은 주님의 유업에 대한 나의 몫에서 나를 몰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를 그 땅에서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땅을 떠날 때, 고대 근동 세계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 다른 땅들에는 수호신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나를 여호와의 땅에서 다른 신들을 섬겨야 하는 외국 땅으로 몰아내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하겠다고 제안한 것이 아니며, 블레셋 영토에 갔을 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본질적으로 그들이 나를 유혹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는 다윗이 유혹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그들이 나를 이스라엘에서 쫓아내려고 하므로 나는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내 백성과 내 하나님을 부인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하려고 합니다. 그건 옳지 않다고 David는 말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분은 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돌아와라, 내 아들 데이빗.

그는 데이비드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초대합니다. 그는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다시는 당신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확실히 나는 바보처럼 행동했고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다윗의 변호, 다윗의 사과에 있어서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사울 자신은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쫓아가서 당신을 죽이려고 하다가 어리석었고, 이 일에 있어서 내가 크게 잘못했고, 당신은 무죄하고, 나는 유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에 관해 베냐민 사람들 사이에 의심이 든다면 바로 여기 있는 이 이야기들은 다윗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가 보게 될 것은 베냐민 사람들을 포함한 사람들이 여전히 다윗의 잘못을 비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자가 이것을 포함시킨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사울이 다윗이 결백하다는 사실을 두 번 목격하게 했습니다. 두 명의 증인이 있고 이 경우에는 사울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이제 David는 말하자면 자신의 주장을 실제로 설득력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여기 왕의 창이 있습니다. 너희 청년 중 한 사람을 와서 가져오게 하라. 그래서 요점은 내가 당신의 창을 얻었으니 전과 마찬가지로 당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의로움과 신실함에 대해 보상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나는 여호와와 기쁨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오늘 당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듯이, 주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여기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는 주님이 무엇보다 먼저 의와 신실함으로 상을 주시는 일을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겐 당신을 살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신 주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며, 내가 당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을 구한 것처럼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것은 자랑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자기 홍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다윗의 권리에 완전히 속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사울은 이것을 초월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기를 바란다. 당신은 위대한 일을 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합류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초대를 거절했고, 우리는 26장의 끝부분을 읽게 되는데, 다윗은 자기 길을 가고 사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장의 주요 주제에 관해 생각한다면 그것은 실제로 24장의 내용과 같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택하신 종들이 그분께 공의를 구할 때 그들을 옹호하십니다.

그리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몇 가지 핵심 원칙이 등장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지연될 때 하나님의 택하신 종들, 이 경우 다윗은 문제를 강요하려는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비새는 다윗이 사울을 죽이기를 원했거나 실제로는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문제를 강요하지 마세요.

대신에, 당신은 옳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좋은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다윗은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24장에서 보았듯이, 억압을 견딜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의로움을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3장 연속으로 다윗은 복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를 변호하시도록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25장에서 나발과 함께 자신의 손으로

정의를 실현할 뻔했지만, 아비가일은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지혜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David는 여기서 좋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조금 놀랍습니다. 내가 제목을 붙인 27장에서 다윗은 다시 가드로 도망하는데, 이것은 다윗이 그 땅을 떠나 블레셋 영토로 가기로 결정한 두 번째가 될 것이며 그는 가드로 갈 것입니다.

21장에서 다윗이 이렇게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를 쫓고 있었고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는 신부에게 갔다. 그는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혼자 가드로 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땅을 떠나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가면서 속임수를 써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를 보고 '와, 이 사람이 왕이구나'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은 전쟁에서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David는 그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곤경에 빠졌고 그 사람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친 척해야 한다. 그리고 그곳의 왕 아기스가 말하기를 내 주위에는 미치광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데이비드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데이비드를 놓아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속임수를 써야 했습니다. 이제 그는 이상하게도 다시 가드로 가려고 합니다.

내 생각엔 그는 사울이 완전히 예측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나는 이것에 지쳤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긍정적인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내 생각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다윗이 처음 떠났을 때 주님께서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건너가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선지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곳은 다시 유다에 있느니라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윗은 다시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속임수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특별한 경우에 주님께서 다윗의 속임수를 승인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때로는 속임수도 괜찮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각 상황을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더 중립적입니다.

때로는 괜찮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다윗이 그 땅을 떠날 때에는 그 땅이 부정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저자가 여기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가드로 도망쳤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의 생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다윗은 속으로 생각하되,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내가 망하리라고 생각하였더라. 이제 이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다윗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당신을 죽이실 수 없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운명입니다. 나는 당신의 두 번째 지휘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달려가는 다윗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사울 자신도 24장에서 당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26장에서는 너희가 승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결국에는 번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윗이 번영할 수 있도록 개인, 핵심 개인, 요나단, 사울, 지혜의

목소리 아비가일을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때로는 너무 큰 압박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황에 의해 삼켜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기서 David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느 날 나는 사울의 손에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도망하는 것뿐이다. 그게 사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이스라엘 어디에서나 나를 찾는 것을 그만두고 나는 그의 손에서 빠져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라는 이런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이 시점에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것은 매우 실용적인 추론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윗은 이 시점에서 믿음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600 명의 병력을 데리고 갔습니다.

다른 때에는 그는 혼자였습니다. 이제 그는 작은 개인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협상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떠나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가드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는 가족이 함께 있습니다.

David에게는 현재 두 아내 Achinoam과 Abigail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마이클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이 가드로 도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옳았습니다. 매우 실용적인 수준에서 그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땅에서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아, 내가 여기 없고 블레셋 땅에 있는 줄 안다면 그는 더 이상 나를 추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가 내 목에 숨을 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따라서 매우 실용적인 수준에서는 David가 옳았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믿음으로가 아니라 보는 것으로 행할 때 적어도 처음에는 그 결정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똑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복잡해질 것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시골 성읍 중 한 곳을 내게 주어 거기서 살게 하소서 어찌하여 당신의 종이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아야 합니까? 즉, 나는 여기서 당신에게 어떤 좋은 일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관할하는 국경 도시 중 하나에 나를 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기스는 그 날에 그에게 시글락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그때부터 계속 유다 왕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글락에게 배정되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은 바로 그곳이다.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 지역에서 1년 4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동안 여기에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이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런데 8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기슈 제사를 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슈 의식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David는 Transjordan에 없습니다.

그는 여기 요르단 동쪽이 아닙니다. 그는 서쪽 블레셋 영토에 있습니다. 기슈 의식은 트랜스요르단에 사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슈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도 여호수아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민족의 명단에 포함된 기슈 의식일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들이 가나안 원주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들을 진멸할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멸망당할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에 대한 합법적인 후보자입니다. 우리는 또한 Gerzites에 대해서도 읽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 번째 그룹인 아말렉 족속, 미움받는 아말렉 족속이 대적임을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모세는 그들을 진멸하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이 멸망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런 결정을 내릴 권리가 계십니다. 그들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윗 시대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악했습니다.

사울은 그들을 쓸어버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그 근처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 중 적어도 하나를 제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변에는 아직도 아말렉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은 그들을 완전히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애굽 술까지 이르는 땅에 거주하였더라.

다윗은 한 지역을 공격할 때마다 이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우리는 게르스 사람들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그는 그들과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할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 지역을 공격할 때마다 남자나 여자를 살려두지 않고 양과 소와 당나귀와 낙타를 가까이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Akish로 돌아 왔습니다. 그런데 데이빗은 왜 그러는 걸까요? 그는 왜 모두를 쓸어버리는 걸까요? 글썄, 그는 여기에 계획이 있습니다. 보세요,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낯선 땅에 있을 때에도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입니다.

다윗은 타국 땅에서도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며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과는 대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kish가 그에게 물었을 때 오늘은 어디로 습격하러 갔습니까? 데이빗은 보고를 해야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유다의 네겍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말했다. 그래서 다윗은 아키쉬에게 내가 유다를 공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은 자신을 아키쉬의 충성스러운 신민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David가 Akish와 소통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용병이고 당신의 충실한 추종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 아말렉 사람들이나 게술 사람들 중 일부가 살아남는다면 그들은 아마도 다윗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을 아키쉬에게 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를 살려 가드로 데려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우리에게 고하기를 다윗이 이런 일을 했다고 말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지역에 사는 동안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는 다시 속임수를 써야만 합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David는 여기서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는 Akish가 자신이 충성스럽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 여러 면에서 실제로 타협해야 합니다. 글썄, 작동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 행할 때 때로는 일이 잘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키쉬는 다윗을 신뢰하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너무 미워하게 되었기 때문에 평생 나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Akish는 David가 충성스러운 추종자라고 확신합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에 보면 그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군대를 모았다고 나옵니다. 이제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아키쉬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부하들이 나와 함께 군대에 갈 것임을 당신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했습니다. “나는 내 살과 피를 상대로 싸울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다윗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주의 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직접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Akish는 아주 잘 대답했습니다. 너를 평생 경호원으로 삼아줄게.

따라서 다윗은 자신의 속임수가 너무나 성공적이어서 아키쉬가 다윗이 충성스러운 추종자라고 완전히 확신하는 상황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에게 우리가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고 있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빗은 '그래, 내가 그렇게 할게'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바로 거기에 남겨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다음 몇 장에 걸쳐 할 일은 다윗과 사울 사이를 오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David에게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다윗은 그 땅을 떠났고 우리는 사울을 뒤에 남겨 두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David의 활동에 대해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에는 긴장감이 발전했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울 것입니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글썄요, 저자는 28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사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29장과 30장에서

다윗에게로 돌아올 것이고, 그 다음 1장에서 사울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31. 그래서 때때로 스토리텔링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 영화 버전을 생각해보면 간달프와 아라곤 그리고 그 모든 동료들이 한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도르에서 반지를 파괴하려는 프로도와 샘의 모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간달프와 아라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전환하여 프로도와 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집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쪽 전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방식대로 우리는 앞뒤로 이동합니다. 때로는 이야기가 그런 식으로 전달될 때 모든 것을 완벽한 연대순으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A에서 B로 이동할 때 플래시백이 포함되어 연대순으로 겹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특정 계정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로버트 버겐(Robert Bergen)은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대한 New American Commentary에서 이 내용을 연대순으로 정리하는 데 훌륭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왕의 귀환을 통해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책 끝부분에 있는 톨킨이 사건의 연대기를 제공하여 상황이 연대순으로 어떻게 정렬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에는 연대순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8장에 이르면 초점은 사울에게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28장 3절부터 25절까지를 엔도르의 집회, 무덤 너머에서 온 나쁜 소식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Seance in Endor, Beyond the Grave의 Bad News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을 보면, 사무엘이 죽었더라.

기억하세요, 우리는 25장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적어도 사울에게는 일종의 불길한 예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야기의 첫 번째 주인공인 사무엘이 그 장면에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사울입니다.

아마도 그는 현장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장에서 그것에 대해 읽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애곡하여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더라. 그리고 사무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계정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몇 가지 배경 정보도 얻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에피소드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사울은 그 땅에서 영접한 자들과 영매술자들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은 죽은 자의 세계에 접근하려는 영매와 강신술사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죽은 자와 대화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한 구약의 율법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이스라엘 땅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들의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는 법을 준수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은 사울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제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한 일로서 긍정적인 일이었지만, 압박이 가해지면 실제로 원칙을 위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와서 수넴에 진을 쳤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떠난 곳에서 여기서 조금 앞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에 모이기 전에는 그들이 수넴으로 이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전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앞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윗에게로 돌아올 때 다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플래시백을 할 것입니다. 사울은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을 쳤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봅니다.

늘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사울은 전형적인 방식으로 두려워합니다. 공포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운다. 그가 주님께 물었지만 주님께서서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보를 얻으려고 시도하는 전형적인 방법 중 일부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사울에게 꿈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어떤 선지자에게도 사울의 미래에 대한 꿈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림 또는 선지자. 그 방법 중 어느 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우림-뚝뚝 방법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을 하고 가방에 손을 넣으면 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림은 예, 뚝뚝, 아니오일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왜 안 되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음, 고대 근동 문학에는 이것과 매우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때로는 그것이 단지 일회성 답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일정 횟수만큼 연속해서 같은 답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앗시리아 평행선에서 여러분은 세 번 답을 얻어야 합니다. 나는 그것이 그랬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연속해서 같은 대답을 여러 번 얻을 수 없었습니다. 우림과 뚝뚝은 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에게는 일관된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아마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사울과 대화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억해보면, 이야기 전반에 걸쳐 주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주님께 의논하고 주님께 여쭙어 왔습니다. 그가 주님께 물을 때마다 주님은 그에게 믿을 만한 대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David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는 에봇과 함께 아비아달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사울이 제사장들을 멸절했던 노베의 유일한 생존자 아비아달.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자를 찾으라 내가 가서 물으리니

엔도르(Endor)에 하나가 있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것이 그릇된 일임을 깨닫고 점술가와 신접한 자들과 그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쫓아내었으나 자기가 절망할 때에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꿈을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림과 둠뭉을 사용하실 때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통신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체를 찾아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의식과 그런 종류의 일은 항상 옳은 일을 하는 것보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변장을 하고 블레셋 군대가 가까이 옵니다.

사실, 그는 자신이 가는 곳으로 가기 위해 아주 가까이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그는 다른 옷을 입는다. 그는 왕처럼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 어둠 속에서 그와 두 남자가 그 여자에게 갔다. 그리고 사울은 종종 마녀라고 불리는 이 무당에게 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실제로는 영매, 즉 산 자의 땅과 죽은 자의 땅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할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라를 위해 영에게 문의하고 내가 지명하는 사람을 불러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종류의 함정수사가 진행 중이고 영매인 그녀를 뿌리 뽑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사울이 행한 일을 알겠나이다. 그분은 이 땅에서 영접한 자들과 영매술자들을 끊어 버리셨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내 생명에 뗏을 놓아 나를 죽게 하였습니까?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가두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사울에게 한 말에서 그녀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잘못이며 사울 자신도 영매와

영매술자들을 없앴다는 것을 그에게 상기시키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무엇이 옳은지 한 번 더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는 이전에는 그에 맞춰 행동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두고 그에게 맹세하니 이상하게도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네가 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여자가 “내가 당신에게 누구를 길러 드릴까요?”라고 물었습니다. 사무엘을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글쎄요, 사무엘은 그 시대에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언과 정보를 얻기 위해 사무엘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여자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사무엘을 요구한다면 당신은 사울이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직 그런 식으로 추론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정보를 요청했을 것입니다. 사울과 그의 종이 그들의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사무엘에게 가서 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사무엘을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그녀의 경험에는 평범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보통 그녀가 죽은 자의 세계에 접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용되는 언어를 통해 그녀가 oave를 가졌다는 것을 압니다.

그녀에게는 오이브(oave)라고 불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땅을 파는 의식용 구덩이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곳에서도 이런 종류의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일종의 지하 세계에 접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는 그곳이 죽은 영혼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하세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구덩이를 가지고 있었고 내 생각에 그녀는 주문을 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녀는 말하는 목소리에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냥 목소리.

일종의 시각적 접촉일 수도 있지만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녀가 평소에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사무엘을 보고 큰소리로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나를 속였습니까?” 당신은 사울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녀의 경험에서 이 시각적 접촉이 달랐다고 제안하는 이유는 그녀가 사무엘을 실제로 볼 때 영이 단지 나에게 말을 걸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실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돌아와서 생생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왕을 위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는 누구에게도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사울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이 보이나요? 분명히 사울은 그것을 볼 수 없거나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녀가 구덩이 너머를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았고 사무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NIV는 그것을 번역합니다. 나는 유령 같은 형상이 땅에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옷을 입은 노인이 올라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렇게 묘사됩니다.

그는 예언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문제는 히브리어 본문에 복수형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엘로힘이 복수형으로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엘로힘은 히브리어로 복수형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단어는 대개 한 분이신 참하느님이나 한 영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사용될 때는 일반적으로 단수 동사가 함께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복수형입니다. 번역하면 신이 보이고 땅에서 영혼이 올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문법적 동의를 위해 복수 동사를 사용하더라도 단일 지시 대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약간의 기술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영혼이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그 의미는 그가 다른 영혼들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울은 그것에 대해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무엘에게 집중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옷을 입은 노인이 올라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가 사무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적절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운이 그 사람을 위해 그런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측근.

어쨌든 사울은 그것이 사무엘임을 알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에 대한 존경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15절에서 말하는데, 그가 말하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 나를 불러서 나를 괴롭게 하였습니까? 사후 세계에 대한 구약의 견해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후의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Samuel은 마치 그가 그곳에서 낮잠을 자고 있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왜 나를 키워서 나를 방해했습니까? 이는 이사야서 14장에서 바벨론 왕이 죽은 자의 세계인 스올에 도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모든 스올은 혼란이다. 그리고 저 아래에는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지하세계에서의 당신의 지위가 인생에서의 당신의 지위를 반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하 세계와 사후 세계와 그 모든 것에 대한 구약의 견해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주제에 대해 적절한 정의를 내리려면 아마도 두어 번의 강의를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네가 왜 나를 방해하였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세에 대한 구약의 관점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과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내가 큰 고민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달라고 전화했습니다. 나는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무엘, 당신을 불러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16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셨고 여호와께서 네 말로 너를 대적하시거늘 이제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의논하느냐”고 말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대답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을 나를 통하여 이루셨느니라. 나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네 손에서 빼앗아 네 이웃 사람에게 주셨느니라. 이제 사무엘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앞서 그가 더 일반적인 용어로 말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그는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고 그 모든 것입니다.

데이비드에게. 다윗이 그 사람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말렉 사람에게 진노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이같이 행하셨느니라

기억하십시오. 사울은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는 장 바로 다음 장에서 사무엘이 이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은 너희와 너희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즉, 당신은 여기로 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스올에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를 방해했습니까? 나는 오래 전에 예언했는데, 여호와께서 당신에게서 나라를 빼앗으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그의 말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당신을 거부했습니다. 그 일이 성취되는 날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정말 사무엘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의 정신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것은 악마이거나 그와 비슷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의 메시지는 이전에 그가 전한 메시지와 일치합니다. 그 사람은 사무엘이라고 합니다.

그는 사무엘과 같은 방식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독특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사무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와서 사울에게 말하고, 사울에게 그의 메시지를 반복하고, 그의 때가 이르렀음을 그에게 알리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시스템에 엄청난 충격이다. 그리고 그는 사무엘의 말을 듣고 두려워서 땅에 완전히 엎드렸다.

그의 힘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그에게 와서 그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기본적으로 “보시오, 당신의 종이 당신께 순종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 목숨을 걸고 당신이 나에게 말한 대로 했습니다. 나에게 그것을 꺼내지 마십시오. 내 생각에는 그것이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난 그냥 당신이 말한대로 했어요.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그가 말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나한테까지 떠맡기지 마세요.

그러므로 부디 종의 말을 들으시고 내가 먹을 것을 주어 당신이 먹고 힘을 얻어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생각에 그녀는 그를 약간 기분 좋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거절하며 “나는 먹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자들은 여자에게 합세하여 그에게 권유합니다. 그래서 그는 땅에서 일어나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들은 먹는다.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은 일어나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이 그 장면에서 제거될 이야기의 장소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데이빗에게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지금은 그의 시간이다.

사울은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선택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수업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Dr. Bob Chisholm과 그의 사무엘상하장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사무엘상 26-28장 15회입니다. 다윗이 다시 사울을 살려 주다(26장). 다윗이 다시 가드로 도망하다(27장), 그리고 에인도르에서 집회(무덤 너머의 나쁜 소식), 28장.